

사회보장급여와 빈곤 노인의 노동공급*

전 승 훈**

노인 빈곤층의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초통계 분석결과 노인의 빈곤율은 30%이상으로 비노인 빈곤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빈곤 노인 가구의 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 확률효과 패널로짓 분석에 따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노인 빈곤층의 경우 노동공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노인 빈곤층의 노동공급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빈곤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은 노인 빈곤층의 노동공급 의향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의 노동비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용어 : 생계급여, 노동공급 유인, 노인 빈곤, 패널이항로짓분석

1. 서론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이상 빈곤율은 43.8%로 OECD평균 14.0%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17세 이하 빈곤율이 14.5%로 OECD 회원국 중 11위, 18~65세 빈곤율이 12.7%로 OECD국가 중 9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후소득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인의 고용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는 4,996천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11,504천명 대비 43.47% 수준에 이른다. 연간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2010년 36.2%이던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2018년 40.1%로 3.9%p 상승하였다. 한국의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7.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이 30%를 넘어선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한국 뿐이다.¹⁾

* 본 논문은 학술대회용으로 작성된 수정이 필요한 논문입니다.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1) 이철희(2014)는 노후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높은 고용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 일자리가 노인의 빈곤탈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고용구조를 분석한 김복순(2014)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의 경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10명 당 약 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순(2014)에 따르면 노인 임금근로자 중 61.2%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10분위별 최하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일자리의 질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만일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빈곤노인의 노동공급이 다른 소득계층의 노인에 비해 더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성림(2015)에 따르면 빈곤층의 경우 공사이전소득이 주요 소득원이며, 근로소득은 중산층 이상의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승훈·조덕호(2017)은 빈곤결정과 취업결정과 관련된 이변량프로빗모형 추정결과를 통해 빈곤결정과 취업결정이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빈곤노인의 경우 노후소득 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을 상대적으로 조금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고령이어서 취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더 빈곤해 지는 순환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생애노동이력 등을 고려할 때 빈곤노인이 다른 노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인 취약계층일 수도 있다. 송현주 외(2014)는 독거노인의 생애노동 이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독거노인의 생애 첫 일자리와 주된 일자리가 농림어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및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층의 상당수가 생애노동기간동안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일용직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일 연령 등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빈곤층이 취업을 적게 하고 있다면, 이는 연령, 생애노동이력 등 주요 변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빈곤층이 취업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이 노동공급을 줄이는 원인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노동 비유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충급여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노동 비유인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임과 함께, 사회보장급여의 노동비유인이 적절하게 제거될 수 있다면 빈곤 노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은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노인가구 가구주의 취업실태, 노인가구의 빈곤율 등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확률효과를 고려한 패널로짓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빈곤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노인가구의 취업과 빈곤실태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년도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노동시장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1998년에 처음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 자료이다.(<https://www.kli.re.kr/klips/>)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가구자료와 가구원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원의 개인정보 및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빈곤 노인의 노동공급에 대해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2차 자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패널이탈에 의한 표본마모와 도시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추가가 실시된 것이 12차 자료(2012년 조사)자료이기 때문이다.

2. 노인의 소득수준과 빈곤

2018년 기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측정된 전국의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28.6%이다. 본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60세를 전후하여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9년 21.0%에서 2018년 28.6%로 10년 사이에 7.6%p 증가하였다.

<표 1> 노인의 비중

	노인의 비중	표본 수
2009	21.0	14,489
2010	22.2	14,118
2011	22.8	13,899
2012	23.8	13,998
2013	24.3	13,887
2014	25.9	13,168
2015	25.8	14,011
2016	26.7	14,202
2017	27.3	14,475
2018	28.6	14,445

대부분의 가계조사에서 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경상소득을 비교하였다. 경상소득은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비교를 위해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연간 기준 4,68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가구는 3,557만원 그리고 비노인가구는 5,43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의 경상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준 균등화 경상소득은 노인가구의 경우 연 2,27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비노인가구의 경우 연 3,22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및 구성(가구주 기준)

(단위: 실질기준, 만원/1년, %)

	경상소득			균등화 경상소득		
	노인	비노인	전체	노인	비노인	전체
2009	2,653	4,506	3,937	1,666	2,556	2,282
2010	2,849	4,656	4,075	1,808	2,660	2,386
2011	2,756	4,648	4,030	1,783	2,673	2,382
2012	2,879	4,737	4,108	1,852	2,726	2,430
2013	3,054	4,872	4,239	1,981	2,814	2,524
2014	3,058	4,914	4,262	1,977	2,849	2,543
2015	3,270	4,932	4,319	2,091	2,860	2,576
2016	3,381	5,152	4,485	2,197	3,004	2,700
2017	3,436	5,315	4,586	2,231	3,103	2,765
2018	3,557	5,437	4,681	2,275	3,227	2,844

2018년 기준 노인가구의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9%로 조사되었다. 이 비중은 비노인 가구의 90.8%에 비해서는 약 30%p 낮은 비중이지만, 노인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으로 은퇴 시점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낮지 않은 비중이다. 노인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2009~2018년 기간중 큰 변화 없이 60%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중 비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과 이전소득의 비중이다. 2018년 기준 노인가구 소득 중 사회보험과 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14.9%와 10.7%이다. 이는 비노인가구의 0.9%와 3.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편 사회보험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3.2%에서 2014년 15.8%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14.2%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2018년에는 14.9%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소득의 비중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9년 13.5%에서 2018년 10.7%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소득의 비중은 1.0%로 비노인가구의 0.5%에 비해 0.5%p 높았으며, 부동산소득의 비중은 10.5%로 비노인가구의 4.4%에 비해 6.1%p 높았다. 한편 노인가구의 금융소득 비중은 최근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의 금융소득 비중은 2009년 3.1%에서 2018년 1.0%로 감소하였다.

<표 3>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및 구성(가구주 기준)

(단위: 실질기준, 만원/1년, %)

		소득비중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이전소득
노인	2009	60.4	3.1	9.7	13.2	13.5
	2010	60.2	2.5	11.6	13.7	12.1
	2011	60.1	2.4	10.0	14.5	13.1
	2012	60.4	2.0	9.7	15.2	12.7
	2013	59.2	2.1	11.5	14.9	12.2
	2014	60.6	1.6	9.6	15.8	12.4
	2015	61.5	1.9	10.3	14.5	11.8
	2016	61.1	1.4	11.3	14.2	11.9
	2017	59.9	1.8	11.2	14.9	12.2
	2018	62.9	1.0	10.5	14.9	10.7
비노인	2009	92.6	0.7	2.6	0.9	3.1
	2010	91.8	0.8	3.1	0.8	3.5
	2011	93.2	0.8	2.3	0.7	3.0
	2012	92.7	0.6	2.8	0.8	3.0
	2013	92.6	0.6	2.7	0.7	3.4
	2014	93.1	0.6	2.3	0.7	3.3
	2015	93.8	0.6	2.4	0.6	2.7
	2016	91.2	0.8	3.2	0.8	4.1
	2017	91.5	0.4	4.0	0.8	3.3
	2018	90.8	0.5	4.4	0.9	3.4
전체	2009	86.0	1.2	4.1	3.4	5.3
	2010	84.7	1.2	5.0	3.7	5.5
	2011	85.8	1.2	4.0	3.8	5.2
	2012	85.0	1.0	4.4	4.2	5.3
	2013	84.2	1.0	4.9	4.3	5.6
	2014	84.9	0.9	4.2	4.5	5.6
	2015	84.7	0.9	4.6	4.5	5.3
	2016	82.6	1.0	5.5	4.6	6.4
	2017	82.3	0.8	6.1	4.9	5.9
	2018	82.3	0.6	6.2	5.2	5.6

아래 표는 노인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노인 빈곤율은 가구원 기준, 그리고 가구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즉 전체 가구원 중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중을 측정한 것이 가구원 기준 빈곤율이고, 빈곤가구의 가구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 가구주 기준 빈곤율이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2018년 기준 가구원 기준 노인 빈곤율은 30.9%로 비노인 가구원 빈곤율 7.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은 2009년 34.7%에서 2018년 30.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추세를 보면 2016년 29.5%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 30.5%, 2018년 30.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노인가구의 빈곤율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되고 있다. 가구주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32.9%로 측정되었다.

<표 4> 노인가구의 빈곤율

(단위: %)

	가구원 기준			가구주 기준		
	노인	비노인	전체	노인	비노인	전체
2009	34.7	8.8	14.2	38.3	8.7	17.8
2010	34.1	8.3	14.0	37.9	9.2	18.4
2011	35.2	7.1	13.5	38.4	7.7	17.7
2012	32.7	7.1	13.2	36.9	7.5	17.5
2013	33.3	7.5	13.8	36.6	8.4	18.2
2014	32.4	6.6	13.3	36.1	8.0	17.8
2015	32.1	6.0	12.8	35.8	6.6	17.4
2016	29.5	6.8	12.8	33.0	7.2	16.9
2017	30.5	7.5	13.8	33.6	7.7	17.7
2018	30.9	7.6	14.2	32.9	9.2	18.7

아래에서는 노인가구의 경상소득을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노인가구 중 비빈곤가구의 소득은 연간 기준 4,82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빈곤가구의 소득은 연간 기준 959만원으로 비빈곤가구의 약 2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노인 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744만원, 노인 비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3,024만원으로 측정되어, 노인 빈곤가구의 소득이 노인비빈곤가구 소득의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 빈곤 가구의 경상소득

(단위: 실질기준, 만원/1년)

	경상소득						균등화 경상소득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전체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전체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2009	3,859	712	4,855	860	4,625	762	2,366	538	2,749	536	2,661	538
2010	4,134	742	5,027	975	4,809	821	2,563	569	2,867	610	2,793	583
2011	4,012	741	4,958	924	4,727	795	2,539	571	2,846	591	2,771	577
2012	4,095	805	5,037	1,045	4,793	874	2,571	624	2,894	666	2,810	636
2013	4,344	819	5,224	1,008	4,987	876	2,758	633	3,011	664	2,943	642
2014	4,323	814	5,247	1,066	4,994	887	2,729	645	3,036	694	2,952	659
2015	4,607	871	5,211	1,009	5,038	905	2,877	680	3,014	689	2,975	682
2016	4,592	916	5,466	1,081	5,201	960	2,926	714	3,181	699	3,104	710
2017	4,673	988	5,673	1,035	5,359	1,001	2,977	753	3,306	672	3,203	732
2018	4,829	959	5,872	1,115	5,526	1,005	3,024	744	3,475	760	3,326	749

노인 빈곤가구의 소득구성은 노인 비빈곤가구의 소득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 빈곤가구의 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전소득으로 전체 소득의 52.3%가 이전소득이었다. 이는 비노인가구의 6.7%에 비해 45%p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 빈곤가구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2018년 기준 26.3%로 노인 비빈곤가구의 66.4%에 비해 40%p 가량 낮은 수준이다.

노인빈곤가구의 이전소득 비중은 비노인 빈곤가구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비노인 빈곤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2018년 기준 28.0%이다. 반면 비노인 빈곤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61.4%이다. 비노인 빈곤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비중은 비노인 비빈곤 가구의 91.4%에 비해서는 30%p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 비빈곤 가구의 66.4%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표 6>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소득 구성

(단위: %)

		비빈곤					빈곤				
		근로·사업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연금	이전소득	근로·사업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연금	이전소득
노인 가구	2009	63.7	3.2	10.3	13.6	9.3	32.0	2.2	5.2	10.2	50.4
	2010	63.8	2.5	12.4	14.1	7.1	26.9	2.1	4.5	9.4	57.2
	2011	64.0	2.5	10.7	14.7	8.1	25.6	2.2	3.8	12.6	55.8
	2012	64.3	2.0	10.3	15.4	8.0	26.1	1.9	5.0	13.5	53.6
	2013	62.9	2.0	12.2	15.0	7.8	25.2	2.5	5.5	14.2	52.5
	2014	65.0	1.6	9.9	15.9	7.6	19.6	1.5	6.3	14.9	57.6
	2015	65.6	1.9	10.9	14.1	7.5	22.7	1.5	4.6	18.0	53.2
	2016	65.0	1.4	11.9	14.0	7.7	21.2	1.0	5.4	17.0	55.4
	2017	63.2	1.9	12.1	15.0	7.9	29.1	1.1	2.6	14.6	52.6
	2018	66.4	1.0	11.2	14.7	6.7	26.3	1.3	3.2	16.9	52.3
비 노인 가구	2009	92.9	0.7	2.7	0.8	2.9	75.8	0.6	1.2	3.4	19.0
	2010	92.1	0.8	3.1	0.7	3.2	76.9	0.9	0.2	3.2	18.8
	2011	93.5	0.8	2.3	0.7	2.7	73.7	0.3	1.2	1.9	22.8
	2012	93.0	0.6	2.8	0.8	2.7	74.9	0.6	1.5	1.8	21.2
	2013	92.9	0.6	2.7	0.6	3.1	72.9	0.3	1.2	2.8	22.8
	2014	93.4	0.6	2.4	0.7	2.9	73.0	1.1	0.6	2.3	23.0
	2015	94.0	0.6	2.4	0.5	2.5	73.6	1.0	1.7	4.0	19.7
	2016	91.5	0.8	3.2	0.7	3.9	70.5	0.6	1.2	4.8	22.9
	2017	91.8	0.4	4.0	0.8	3.0	70.2	0.8	0.9	6.2	21.9
	2018	91.4	0.5	4.4	0.8	2.9	61.4	1.4	2.3	6.9	28.0
전 체	2009	87.3	1.2	4.1	3.3	4.1	48.8	1.5	3.6	7.6	38.4
	2010	86.2	1.2	5.1	3.5	4.1	47.0	1.6	2.8	6.9	41.7
	2011	87.4	1.2	4.1	3.6	3.8	41.9	1.6	2.9	9.0	44.6
	2012	86.7	0.9	4.4	4.0	3.9	42.7	1.4	3.8	9.5	42.6
	2013	85.9	1.0	5.0	4.0	4.2	41.7	1.7	4.0	10.3	42.3
	2014	86.7	0.9	4.2	4.3	4.0	38.2	1.4	4.4	10.5	45.6
	2015	86.6	0.9	4.6	4.1	3.8	36.4	1.4	3.9	14.2	44.2
	2016	84.4	1.0	5.5	4.3	4.9	35.8	0.9	4.2	13.4	45.7
	2017	84.0	0.8	6.2	4.6	4.3	40.4	1.0	2.1	12.3	44.2
	2018	84.2	0.6	6.4	4.8	4.0	37.7	1.3	2.9	13.7	44.4

3. 빈곤 노인의 취업상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원 기준으로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1.6%,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5.8%로 추정되어 고용률은 37.4%로 추정되었다.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38%이다. 반면 비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0.5%,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3.6% 등 고용률이 64.1%로 추정되었다. 비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7%로 추정되었다.

<표 7> 노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노인				비노인				전체			
	임금	비임금	실업	비경제	임금	비임금	실업	비경제	임금	비임금	실업	비경제
2009	13.2	16.4	0.8	69.6	42.9	16.4	2.5	38.2	36.7	16.4	2.1	44.8
2010	13.5	15.7	0.5	70.3	44.8	16.0	1.6	37.7	37.9	15.9	1.3	44.9
2011	14.9	15.3	0.7	69.1	46.4	15.6	1.4	36.6	39.2	15.6	1.2	44.0
2012	16.0	15.9	0.7	67.5	46.2	15.4	1.6	36.8	39.0	15.5	1.4	44.1
2013	17.6	15.3	0.6	66.4	46.8	15.1	1.6	36.6	39.7	15.1	1.4	43.8
2014	18.3	16.4	0.7	64.7	48.1	15.4	1.7	34.8	40.4	15.6	1.4	42.6
2015	19.0	16.3	0.1	64.6	47.4	13.7	1.4	37.4	40.1	14.4	1.1	44.4
2016	19.3	16.6	0.3	63.8	48.4	14.2	1.4	36.0	40.7	14.8	1.1	43.4
2017	20.8	15.6	0.2	63.5	49.0	14.1	1.9	35.0	41.3	14.5	1.4	42.8
2018	21.6	15.8	0.6	62.0	50.5	13.6	1.6	34.3	42.3	14.2	1.3	42.2

노인가구의 고용률이 37.4% 수준으로 추정되었지만, 가구원이 빈곤가구에 속해있는지 아니면 비빈곤가구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노인 빈곤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4.1%로 노인 비빈곤 가구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25.0%에 비해 10.9%p 낮았다. 노인 빈곤 가구의 가구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5.0%로 노인 비빈곤 가구의 가구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20.6%에 비해 15.6%p 낮았다. 노인 빈곤 가구 가구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80.7%로 노인 비빈곤가구의 53.7%에 비해 크게 27.0%p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빈곤 노인의 고용률이 높게 추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고용율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이 노동공급을 하고 있다면, 빈곤 노인의 경우 비빈곤 노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빈곤노인의 노동공급 선택이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빈곤노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8>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노인				비노인				전체			
		임금	비임금	실업	비경활	임금	비임금	실업	비경활	임금	비임금	실업	비경활
빈 곤	2009	11.0	11.2	0.8	77.0	30.2	10.4	6.6	52.8	20.3	10.8	3.6	65.2
	2010	9.3	10.2	0.8	79.7	37.4	9.9	3.0	49.7	22.2	10.0	1.8	65.9
	2011	9.7	10.6	0.9	78.8	31.4	8.8	3.5	56.3	18.5	9.9	2.0	69.6
	2012	10.5	9.4	0.8	79.2	35.9	7.3	3.1	53.7	20.9	8.6	1.7	68.8
	2013	9.9	8.3	0.6	81.1	32.9	8.7	3.3	55.1	19.4	8.5	1.7	70.4
	2014	8.0	9.2	0.8	82.1	37.4	9.4	2.9	50.3	18.8	9.3	1.6	70.3
	2015	10.2	9.2	0.2	80.4	31.6	8.9	4.2	55.3	17.7	9.1	1.6	71.6
	2016	9.1	7.7	0.4	82.7	31.0	10.1	2.2	56.7	17.6	8.7	1.1	72.7
	2017	12.0	7.3	0.0	80.6	26.7	14.1	6.8	52.4	17.8	10.0	2.7	69.5
	2018	14.1	5.0	0.2	80.7	34.6	9.5	3.3	52.7	21.9	6.7	1.4	70.0
비 빈 곤	2009	14.4	19.1	0.8	65.7	44.1	17.0	2.1	36.8	39.4	17.3	1.9	41.4
	2010	15.6	18.6	0.4	65.4	45.5	16.5	1.4	36.6	40.4	16.9	1.2	41.5
	2011	17.6	17.9	0.6	63.9	47.6	16.1	1.2	35.1	42.4	16.4	1.1	40.0
	2012	18.6	19.1	0.6	61.7	47.0	16.0	1.5	35.5	41.8	16.6	1.3	40.3
	2013	21.5	18.8	0.6	59.1	47.9	15.6	1.5	35.1	42.9	16.2	1.3	39.6
	2014	23.2	19.8	0.6	56.3	48.9	15.8	1.6	33.7	43.7	16.6	1.4	38.3
	2015	23.1	19.7	0.1	57.1	48.4	14.0	1.2	36.3	43.4	15.2	1.0	40.5
	2016	23.5	20.3	0.3	55.9	49.7	14.5	1.4	34.5	44.0	15.7	1.1	39.1
	2017	24.6	19.2	0.2	56.0	50.8	14.1	1.5	33.6	45.0	15.2	1.2	38.5
	2018	25.0	20.6	0.8	53.7	51.9	13.9	1.5	32.7	45.7	15.5	1.3	37.6

Ⅲ. 사회보장급여와 빈곤노인의 노동공급

1. 추정방법 및 변수

가. 추정방법

제 II장의 분석을 통해 빈곤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고, 경제활동 상태에서 임금소득자와 비임금소득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III장에서는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빈곤 노인의 노동공급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빈곤 노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 노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보장급여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생계급여의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노동공급 여부이다. 노동공급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노동공급 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공급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을 하는 경우는 1의 값을, 노동공급을 하

지 않는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한 상태에서 노동공급 여부에 대한 이항선택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 의향을 분석한다. 이에 현재 노동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직활동을 하면서 노동공급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실업자에게도 1의 값을 부여한다.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은 패널이항선택 모형(panel binary choice model)이다.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 0 \\ 0, & \text{if } y_{it}^* \leq 0 \end{cases}$$

where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psilon_{it}$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모형의 오차항 ϵ_{it} 가 로지스틱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패널로지트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cov(x_{it}, u_i) = 0$ 이라는 가정 하에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추정하였다.

나.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설명변수 중 주요 통제변수는 가구주 연령 및 연령제곱, 성별더미변수, 배우자 유무, 가구주 유무, 가구원수, 주택유형더미변수(자가, 전세, 월세, 기타), 교육수준더미변수(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이상), 건강상태 더미변수(아주 건강함, 건강함, 보통, 간강하지 않은 편, 아주 좋지 않음) 등이다. 이중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변수는 현재의 노동공급 능력을 보여주는 변수이다. 빈곤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있다. 즉 빈곤노인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빈곤노인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변수는 이러한 점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변수는 생계급여 변수이다. 그리고 그 외 사회보험, 자산소득, 노동소득 등의 소득관련 변수 역시 모형에 포함되었다. 이중 노동소득은 노동공급과 관련된 가격변수의 역할을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 모형에 포함되었다.²⁾ 그러나 생계급여, 사회보험, 자산소득 등의 변수는 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소득이기 때문에 빈곤여부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빈곤과의 상호작용 변수, 노인 및 빈곤과의 상호작용변수의 형태로 모형에 포함되어, 빈곤한 경우 생계급여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노인이면서 빈곤한 경우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노동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의미한다.

2. 추정결과

아래 표는 확률효과 패널로짓 분석결과이다. 기본적인 통제변수의 추정결과는 부록에 소개하였고,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변수의 추정결과만을 보고하였다. 추정결과에 모형 1에서 대수 생계급여는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대수(사회보험)과 대수(자산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보험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자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효과가 발생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수(노동소득)은 모형1~모형5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의 상대가격이 비싸지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게 나타남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2는 대수(노동소득)과 함께 빈곤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빈곤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층의 노동공급을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빈곤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인 및 가구 특성 때문이며, 소득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하려는 의사는 빈곤층에게 충분히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모형 3은 모형 2에 노인여부와 빈곤 여부의 상호작용변수를 포함시킨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빈곤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노인과 빈곤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노인의 경우 빈곤하다고 해서 특별히 노동을 공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 빈곤하면 노동을 공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노후소득 부족이 노인 고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모형 4에서는 대수(노동소득), 빈곤더미변수, 그리고 빈곤과 대수(생계급여)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빈곤 더미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과 대수(생계급여)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더미가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형 3에서 확인하였듯이 빈곤 노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빈곤과 대수(생계급여)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은 빈곤층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노동을 공급할 확률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즉 생계급여가 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서 모형 1에서 대수(생계급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표본 중 가구소득에 생계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형 4의 분석결과는 빈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수(생계급여)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대수(생계급여)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모형 5는 모형 3에 노인·빈곤·대수(생계급여) 등 3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킨 결과이다. 분석결과 노인·빈곤·대수(생계급여)의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고 빈곤할 경우 생계급여의 증가가 노동공급확률을 줄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대수(생계급여)	-0.0333 (0.021)				
대수(사회보험)	-0.0274*** (0.007)				
대수(자산소득)	-0.0594*** (0.008)				
대수(노동소득)	0.3793*** (0.007)	0.3945*** (0.008)	0.3954*** (0.008)	0.3911*** (0.008)	0.3940*** (0.008)
빈곤=1		0.1633*** (0.044)	0.0844 (0.055)	0.2006*** (0.044)	0.0748 (0.055)
빈곤×대수(생계급여)				-0.1426*** (0.024)	
노인×빈곤			0.1921** (0.080)		0.2554*** (0.081)
노인×빈곤×대수(생계급여)					-0.1968*** (0.038)
상수항	-17.0564*** (0.226)	-17.2175*** (0.228)	-17.2447*** (0.228)	-17.1997*** (0.228)	-17.2329*** (0.228)
lnsig2u	2.4163*** (0.023)	2.4216*** (0.023)	2.4196*** (0.023)	2.4195*** (0.023)	2.4176*** (0.023)
관측 수	140,625	140,625	140,625	140,625	140,625
개인의 수	19,312	19,312	19,312	19,312	19,312

주: ()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 p<0.01, ** p<0.05, * p<0.1

I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노인 빈곤층의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초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알려진 대로, 빈곤 노인의 고용률은 비빈곤 노인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빈곤 노인 가구의 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 확률효과 패널로짓 분석에 따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노인 빈곤층의 경우 노동공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노인 빈곤층의 노동공급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빈곤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은 노인 빈곤층의 노동공급 의향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의 노동비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경우 노인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노인 노동공급과 관련된 규범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노인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

동공급 결정을 분석하는 노동-여가모형은 여가를 정상재, 노동을 열등재로 보고 있다. 노인의 노동공급을 사회참여라는 형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노인노동공급이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 시점인 60세를 넘어서까지 계속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노동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이와 관련된 노후소득보장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노후소득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의 획득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서, 노동공급 유인을 떨어뜨리는 생계급여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생계급여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강하게 적용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및 일부 개선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복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0월호, 2014, pp.21~35.
- 박경숙, 김미선,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고율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50(1), 한국사회학회, 2016, pp. 221-253.
- 우석진,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한국노년학』, 30권 제2호, 2010, 한국노년학회, pp. 499-513.
- 이성립,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과 소비격차”, 『한국인구학』, 38(2), 한국인구학회, 2015, pp. 85-111.
- 이주미, 김태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pp. 64-73.
- 이철희, “한국 고령노동시장 성격에 관한 비교사적 접근”, 이영훈 편,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임완섭,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p. 90-103.
- 전승훈,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 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제12권 제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pp. 3-3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부록

<부표 1> 추정결과; 주요 통제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연령	0.6373*** (0.010)	0.6381*** (0.010)	0.6399*** (0.010)	0.6389*** (0.010)	0.6398*** (0.010)
연령제곱	-0.0064*** (0.000)	-0.0065*** (0.000)	-0.0065*** (0.000)	-0.0065*** (0.000)	-0.0065*** (0.000)
성별(남성=1)	1.6028*** (0.067)	1.5711*** (0.067)	1.5733*** (0.067)	1.5722*** (0.067)	1.5689*** (0.067)
배우자 유무(유=1)	-0.7772*** (0.058)	-0.7328*** (0.058)	-0.7349*** (0.058)	-0.7486*** (0.058)	-0.7468*** (0.058)
가구주 여부(가구주=1)	2.0731*** (0.064)	2.1317*** (0.064)	2.1312*** (0.064)	2.1283*** (0.064)	2.1330*** (0.064)
가구원수	-0.3263*** (0.020)	-0.3328*** (0.020)	-0.3320*** (0.020)	-0.3298*** (0.020)	-0.3305*** (0.020)
주택(전세=1)	-0.0203 (0.045)	-0.0121 (0.045)	-0.0106 (0.045)	-0.0078 (0.045)	-0.0067 (0.045)
주택(월세=1)	0.3160*** (0.055)	0.3186*** (0.055)	0.3205*** (0.055)	0.3327*** (0.055)	0.3310*** (0.055)
주택(기타=1)	0.1180 (0.086)	0.1252 (0.086)	0.1265 (0.086)	0.1324 (0.086)	0.1331 (0.086)
교육수준(고졸=1)	0.9041*** (0.070)	0.9106*** (0.070)	0.9113*** (0.070)	0.8994*** (0.070)	0.9080*** (0.070)
교육수준(전문대졸=1)	1.3067*** (0.078)	1.3126*** (0.078)	1.3083*** (0.078)	1.2984*** (0.078)	1.3049*** (0.078)
교육수준(대졸=1)	2.4367*** (0.088)	2.4404*** (0.088)	2.4354*** (0.088)	2.4240*** (0.088)	2.4303*** (0.088)
교육수준(석사이상=1)	3.0097*** (0.179)	3.0057*** (0.179)	3.0017*** (0.179)	2.9912*** (0.179)	2.9976*** (0.179)
건강상태(건강=1)	0.6013*** (0.063)	0.6069*** (0.063)	0.6063*** (0.063)	0.6075*** (0.063)	0.6060*** (0.063)
건강상태(보통=1)	0.5581*** (0.067)	0.5660*** (0.067)	0.5657*** (0.067)	0.5676*** (0.067)	0.5652*** (0.067)
(1) 건강상태(건강하지 않은편=1)	-0.8726*** (0.077)	-0.8740*** (0.077)	-0.8745*** (0.077)	-0.8677*** (0.077)	-0.8732*** (0.077)
건강상태(아주 안좋은=1)	-2.8526*** (0.134)	-2.8640*** (0.134)	-2.8615*** (0.134)	-2.8445*** (0.134)	-2.8490*** (0.134)

주 1. 주택은 자가,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이 기준점임

주 2: ()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 p<0.01, ** p<0.05, * p<0.1